

# 젊은층 감정 표출 ‘메신저 ○○방’ 유행, 왜?

### 거지방·분노방·우울방·이별방·독백방... 익명 보장 ‘오픈 채팅방’ 가족·친구에 털어놓기 힘든 고민 함께 나누고 같은 처지 위로 “가상공간 확장 따른 현상...대면 소통으로 문제 해결 바람직”

‘거지방’, ‘분노방’, ‘우울방’, ‘고민방’, ‘독백방’, ‘이별방’... 다소 자극적인 이름이지만 젊은 세대들이 소통을 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의 이름이다. 최근 광주·전남지역 젊은 세대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심적 고통을 표출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본인의 처지 또는 기분상태 등을 공유하고 또 각자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한다. 채팅방의 명칭에 맞춰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오픈채팅방에 입장을 하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익명 ‘○○방’을 이용하면 현실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고민이 있을 때,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해 고민을 상담하거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실명을 밝히지 않고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곳에서 마음 깊이 숨겨둔 고통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방’으로는 지난해부터 유행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거지방’과 메신저의 익명성을 빌어 화를 내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분노방’이

있다. ‘거지방’은 젊은 세대들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고물가에 취업·저축 등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져 스스로 허리를 졸라매는 움푹 현실을 투영하고 있다. 곡성에 살고있는 이동석(29)씨도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거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씨는 2년 동안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면서 부모님께 받는 용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자 스스로 가계부를 작성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소비가 줄지 않아 ‘거지방’을 이용하게 됐다. 이씨는 “실제 소비하는 금액 중 가장 비중이 큰 식비, 생활비 등을 거지방에 공유하면서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약에 대한 조언을 받거나 과소비한 부분은 혼나기도 하면서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스스로 발전하거나 조언을 얻기 위한 목적의 방 뿐만 아니라 단순 감정해소를 위한 방으

로 ‘분노방’도 유행하고 있다. 가정 내 문제, 직장생활, 인간관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익명의 다수에게 문제를 털어놓거나 단순 비방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점이다. 광주시 서구 차평동에 거주하는 권창현(16)군도 최근 교교에 진학한 뒤 부모님과 반년 넘게 진로선택 문제로 갈등하는 고통을 털어놓기 위해 분노방을 찾았다. 권군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달력 모델을 시작으로 의류회사의 아동모델로 발탁되기도 하며 모델을 꿈꿔왔고, 현재도 온라인 쇼핑물 모델로 일하며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모님은 고등학생이 됐으니 공부에 집중하라는 일관된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부모님과 갈등에 대해서는 상담할 수 없었던 권군은 두달 전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분노방’의 존재를 알게됐고 지금까지 이

용하고 있다. 권군은 “가족간 일을 친구나 선생님한테 털어놓을 수는 없지 않나”며 “심리적으로 힘들 때 속으로 삼키지 않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답답함이 많이 가시는 것 같다”고 웃어보였다. 백현옥 송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면서 직접적인 소통을 할 경험이 적었고, 부정적 감정과 경험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에도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가족, 친구 등과 대면 소통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세대가 자라는 환경과 가상공간의 확장에 의해 이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방은 젊은 세대가 기댈 수 있는 환경의 미비, 스트레스 해소의 어려움 등 현대 사회를 대변하는 현상이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잇단 강력범죄에 “택시기사 하기 무섭다”

### 광주 택시기사, 충남 아산서 숨진 채 발견...용의자 태국서 검거 기사들 폭행·협박에 노출...“광주시 보호격벽 설치 예산 늘려야”

광주지역 개인택시 기사가 충남 아산의 한 국도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택시기사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택시운전을 하면서 취객에 폭행을 당할 뿐 아니라 생명까지 잃을 수 있어 안전 확보의 유일한 수단인 보호격벽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4일 아산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께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평택방향 국도에서 A(70)씨가 지나가던 운전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목 부위에선 결박흔이 발견됐다. A씨는 광주지역 개인택시로 지난 23일 새벽 1시께 광주 북구청 앞에서 승객 B(44)씨를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소유의 택시는 인천공항에서 발견됐고 B씨는 태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24일 오후 3시 10분께 태국 현지 공항에서 B씨를 붙잡아 국내로 송환해 A씨를 살인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는 A씨의 카드로 1000만원을 인출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태국에 지인을 만나러 가던 길에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훔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택시기사들은 A씨가 숨진 사실이 알려지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30년 동안 광주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이충진(61)씨는 “택시기사들이 장거리 손님 태우면 좋아 할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운행 중에 ‘교도소에서 이제 막 출소했다’고 겁을 주거나 돈을 주지 않고 달아나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범죄를 뉴스로 접하다보면 호신용품이라도 사야하나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택시기사들은 그나마 범죄를 막기 위해선 ‘보호격벽’ 설치를 해야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설치율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택시기사들이 격벽설치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보호격벽

설치 사업이 실시됐다. 광주지역 택시는 총 8148대(법인택시 3364대, 개인택시 4784대) 중 지난달 기준 보호격벽이 설치된 택시는 486대로, 전체 5.9%에 그치는 수준이다. 택시 현대에 보호격벽을 설치하는데는 22만원이 들고 80%는 시에서, 20%는 택시조합에서 부담한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에는 보호격벽 설치를 위해 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지난해에는 2000만원 올해는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지난 3년동안에는 연평균 택시 170대 꼴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이 같은 추세로 진행된다면 광주의 모든 택시에 격벽을 설치하려면 45년 정도가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승두 광주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은 “이번 택시기사 사망사건은 보호격벽만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광주시는 보호격벽 설치 예산을 대폭 늘려 택시기사 보호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일보 취재진과 만난 A씨의 유가족인 딸은 “아빠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다”라며 “눈이 오면 다른 차가 미끄러질까 싶어 집 앞 골목을 가장 먼저 쓸러 나가는 성실하고 사려깊은 어른”이라고 울먹였다.

지난 2000년 부터 광주에서 개인택시 운전대를 잡은 A씨에 대해 동료들도 “누군가에게 원한 살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며 “항상 차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한달에 한번씩 정비소를 찾은 만큼 성실했다”고 기억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제난대응 안전훈련 24일 광주시 북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북구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다중이용 시설 테러 및 화재·붕괴사고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광주북부경찰, 광주북부소방,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했다. /니명주 기자 mjna@

## 전남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신청 의사 ‘0명’

### 임용기간 제약에 참여율 저조

전남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제’를 신청한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한 국립대 병원인 전남대병원에서는 단 한명의 공공임상교수도 선발되지 않았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교육부가 극심한 의사구인난을 겪는 지방의료원에 국립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를 파견해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에서 순회진료를 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 2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10개 국립대학교 병원 소속의

사 중에서 150명의 공공임상교수를 배정할 계획이 었지만 실제 선발된 인원은 24명(16%)에 그쳤다. 전남대병원은 15명의 의사를 배정받았지만 신청자가 없어 선발된 의사가 없었다. 공공임상교수는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기간 순환근무를 하지만 소속병원에서는 임용기간의 3분의 1만 근무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의사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사부족을 해소하고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선 현재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